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재정관리의 기본방향과 자금문제해결방도

한 영 철

자금문제는 모든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일뿐아니라 특히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나라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금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사회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튼튼한 재정적토대를 마련하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재정문제를 풀어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입니다.》(《김일성전집》제5권 23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자체의 힘으로 모든 재정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우리 나라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은 자주독립국가의 본성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재정문제해결방향이다.

만일 자금문제해결을 다른 나라의 원조나 차관에 의존한다면 자금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을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금융적예속을 면할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예속될수 있다.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공고한 자금원천에 의거

한 화폐자금이 마련되여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폐자금은 그 어떤 주관적욕망이나 의사에 따라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된다. 물론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조직자인 국가가 화폐자금적수요충족을 위한 화폐제도를 마련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구현하여 경제적과정을 추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자금적수요를 충족시키자면 그 공간인 화폐자금의 원천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공고한 화폐자금의 원천은 나라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닦는 과정을 통하여 조성된다.

재정토대는 나라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폐자원을 동원할수 있는 밑천이다.

재정토대는 나라의 일반적인 물질적토대나 국가재정수입원천과 구별된다.

나라의 일반적인 물질적토대는 사회경제생활에 리용되는 물질기술적수단의 총체로써 재정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물질적전제로 될뿐이지 재정토대로 되는것은 아니다.

국가재정수입원천은 재정토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지만 재정토대전부를 대표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일시적유희화폐자금과 같은 중요한 화폐자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나라의 재정토대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것은 자금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것은 나라의 재정토대가 자금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자

주적인 재정토대에 의거하여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시었다.

자주적인 재정토대는 자기 인민의 창조적힘과 자기 나라 내부자원에 의거하여 국가운영이나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재정토대에 의거할 때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금적수요를 일관하게 즉시에 보장할수 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이 중단없이 진행되는 것만큼 그에 필요한 자금적수요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에 맞게 자금적수요를 보장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자금적밀천, 화폐자원이 재생산과정의 진행도에 맞게 자동적으로 마련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자주적인 재정토대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가 자금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다음으로 자금문제해결을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자금문제해결의 방도는 첫째로, 국가재정자금을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국가재정자금은 국가재정체계를 이루는 개별적인 재정고리(단위)들에 조성리용되는 화폐자금의 총체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자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조성리용하는 화폐자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재정자금이 나라의 화폐자원의 기본구성요소로 되고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이 자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은 자금문제해결의 기본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의 화폐자금이나 개인소유의 화폐들이 국가

재정자금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수요충족도와 방법에 따라 기관, 기업소자금과 개인소유의 화폐의 적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국가재정자금수요에 맞게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자금문제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국가재정자금수요는 량적으로 끊임없이 변동되는것만큼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자면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자금문제해결의 견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는 과정으로 된다.

국가재정자금의 해결은 자금원천의 조성과 동원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국가재정자금원천의 조성은 그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자금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기초적인 문제이다.

국가재정자금의 원천은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놓여있으며 그 과정에 형성되는 순소득이 국가재정자금의 기본실체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가 확립되어있고 국가적소유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재정자금의 기본원천이 사회주의기업소들에서 조성되는 사회순소득에 두게 된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 조성되는 사회순소득이 국가재정자금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국가적소유가 압도적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경제구조의 기본특징과 관련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재정관계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재정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이 국가의 기능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인것만큼 어느 사회에서는

지 재정자금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은 국가운영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자본주의국가는 재정수입원천을 반인민적인 조세에 의거하고있으며 그것으로 모자라는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수입원천을 충당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세나 국채공간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기업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재생산구조를 만들어놓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자금을 해결하고있다.

국가재정자금원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기업소들에서 사회순소득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이다.

국가재정자금의 기본원천인 사회순소득을 늘이자면 우선 생산을 량적으로 늘이고 품종을 확대하며 그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순소득의 총적규모는 단위생산물의 가치구성에서 사회순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크기와 생산물의 량에 의해 규정된다. 단위생산물의 가치구성에서 사회순소득의 폭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순소득의 총액도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변동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따라 생산량과 단위생산물가치구성에서의 사회순소득의 규모가 늘어나는것이 법칙으로 된다. 노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생산량과 단위당 사회순소득의 폭을 늘여 사회순소득의 절대적규모를 늘이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순소득은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것에 의해서도 장성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노동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다종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질적

으로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서 생산물의 량적장성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같이 사회순소득을 더욱더 늘이게 한다.

국가재정자금의 기본원천인 사회순소득을 늘이자면 또한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원가저하는 단위생산물당 가치구성에서 사회순소득의 폭을 늘이게 하는것으로서 국가재정자금을 늘인다.

원가저하는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자재와 로력비의 절약으로 나타난다.

원가저하에 의한 사회순소득, 국가재정자금의 장성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가격을 낮추는 조건에서 사회순소득을 늘이는것이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생산조직과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여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이다.

생산을 장성시키고 원가를 저하시키면 사회순소득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국가재정자금원천이 더 많이 조성된다.

국가재정자금원천인 사회순소득을 국가수중에 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순소득의 동원형태를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사회순소득의 동원형태는 경제건설의 전 기간 언제나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되어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국가예산자금의 동원형태를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 지방유지금, 부동산사용료 등으로 규정해주시고 그 납부조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자금문제해결의 방도는 둘째로, 유헤화폐자금을 국가수중에 동원하는것이다.

유헤화폐자금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그만큼 국가예산지출을 절약하면서도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제때에 보충해주어 경제발전의 보다 높은 속도를 이룩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는 생산수단과 상품의 운동을 매개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 과정에 일부 화폐자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나 유통통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기관, 기업소, 주민들의 수중에 머물러있게 된다. 유헤화폐자금은 화폐유통과정에서 일시 떨어져나와 당면하게 쓰이지 않고 사장된 형태로 있게 된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생산물의 판매수입과 그 지출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의 계절성과 관련하여 화폐수입은 주로 연말에 가서 단꺼번에 이루어지지만 화폐지출은 년중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경우에도 생활비나 분배수입은 월이나 연말에 한꺼번에 조성되는 반면에 그 지출은 월 또는 년중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화폐수입과 지출의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는 기관, 기업소와 주민들의 수중에 일시적으로 유헤화폐자금이 생기게 되는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유헤화폐자금은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수중의 유헤화폐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기관, 기업소들의 유헤화폐자금이다.

기관, 기업소유헤화폐자금은 성격이 서로 다른 놓고있는 기업소화폐자금과 국가채정자금 그리고 비생산기관들의 화폐자

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유헤화폐자금은 국가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충적원천으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더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장성시키고 재정수입을 늘리게 한다.

유헤화폐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여기서 은행을 통한 유헤화폐자금의 동원이 기본방법으로 된다.

은행은 유헤화폐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대부공간을 통하여 리용하는 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은행은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형성된 유헤화폐자금을 최대한 자기 수중에 집중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유헤화폐자금을 은행에 동원할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국각지에 조밀하게 분포되어있는 은행지점망체계에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돈자리를 개설하고 화폐자금을 은행돈자리에 입금시키는것이 의무화되어있다. 그리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생긴 유헤화폐자금은 그것이 현금이든 무현금이든 관계없이 은행에 동원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은행기구체계인 중앙은행과 도, 시, 군은행들을 통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유헤화폐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동원하며 저금과 보험공간을 통하여 주민유헤화폐를 동원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문제를 해결하고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재정관리의 기본방향과 자금문제 해결방도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자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